

프랑스어 인용표지 'genre'의 발화 양태에 대한 고찰*

서 정 연

(서울여자대학교)

◆ 국문초록

프랑스 청소년 구어체 담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담화 표지 'genre'는 해당 어휘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의미변화 연구, 해당 표지로 드러나는 화자의 의미·화용의 담화전략 연구, 이 표지의 사용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특정 집단의 독특한 언어 사용 양상에 주목한 사회 언어학적 관점 연구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표지가 직접인용구문에서 드러내는 다양한 담화 정보 의미 값에 주목한다.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의미 값을 직접인용구문에서 드러나는 발화 양태의 의미 양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발화행위론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전달 담화에서 화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담화전략을 발화 책임 수행 작용으로 재조명해 정확히 설명해 내고자 한다. 또한 영어의 직접인용 표지 'be like'의 변이 양상과 비교해, 'genre'가 유사한 언어적 변이와 실천을 보인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구어의 전달 담화 양상을 범언어적 관점에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인용표지 'genre'를 비규범적 언어 사용, 특정 집단의 구어적 습관, 무의미한 반복 등으로 규정하는 규범적 언어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언어현상의 하나로 인용체계 내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해명하고자 했다.

주제어 : genre, 담화표지, 발화 책임 수행 작용, 새로운 인용표지, 젊은 세대의 구어 실천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3-0109).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프랑스어 구어, 특히 젊은 세대의 구어(*parler jeune*, 앞으로는 약어로 PJ로 표기)¹⁾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언어 표지 ‘genre’에 대한 연구이다²⁾. 이 표지가 직접인용과 함께 사용될 때 드러나는 의미·화용적 의미 값과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발화행위이론 (*La théorie de l'énonciation*)³⁾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Yaguello(1998)는 ‘genre’의 다양한 담화표지 (*marqueur discursif*) 용례를 개인 언어 습관에 기인한 잘못된 표현으로 보는 전통 문법학자의 견해와 달리⁴⁾, 담화 내에서 고유의 의미 값과 기능이 있는 언어 표지로 구분하였다.⁵⁾ 그를 선두로 하여, 문장에서 ‘명사’ 외에 다양한 통사적 위치에 등장하는 ‘genre’의 다양한 의미 값과 기능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genre’의 문법화 과정⁶⁾과 확장된 의미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 (Fleischman & Yaguello (1999), Rosier (2002), Isambert (2016) 외)와 이 표지의 세대적 그리고 매체적 특징에 주목한 사회언어학 관점의 연구(Secova (2015), Cheshire & Secova (2018), Gadet & Kerdreux

- 1) 젊은 세대에서 통용되는 특정 유형의 발화를 ‘젊은 세대의 언어 *parler jeune*’라고 지칭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amizet, B. (2004:81-85) 참조.
- 2) Cheshire, J., & Secova, M. (2018:214)는 실증 데이터 분석(2006-2014)을 바탕으로 1995년 이후 태생의 화자들의 대화에 ‘genre’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함.
- 3) 이 이론은 Culioli, A. (1973)와 Desclés, J-P. (1980)에서 성립됨. Desclés, J-P. & Guentchéva, Z. (2002:2)에서 재인용.
- 4) 프랑스 국립국어원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émie Française*)은 이러한 ‘genre’의 담화표지적 용례를 ‘잘못된 표현(*emplois fautifs*)’으로 구분함. 이 표지의 출현을 ‘언어의 탁현상 (*tic de langage*)’ 혹은 ‘말더듬 현상 (*dysfluency*)’ 등으로 보는 규범적인 입장이 있음. 자세한 논의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www.academie-francaise.fr/genre>
- 5) Yaguello(1998:18)는 그의 저서, ‘언어의 소소한 사실들(*petits faits de langue*)’에서 이 표지들의 담화적 의미 값과 기능에 대해 주목했고, 이후 Dostie&Pusch(2007:3-12)는 이러한 표지를 담화표지로 명명함.
- 6) Cheshire, J., & Secova, M., *ibid.* p. 209에서 ‘genre’의 문법화 과정은 어휘적 의미 외의 다양한 통사적 기능을 갖는 담화표지로의 출현, 그리고 빈도수의 증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

(2020) 외)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들은 'genre'의 인용 표지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도 발견되는 범언어적 현상임에 주목해 실제 용례 분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⁷⁾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선행연구들이 인용표지 'genre'의 중심의미로 제안한 'mitigation(완화)⁸⁾, '책임회피(désengagement)⁹⁾' 등의 화용적 의미 값과 기능을 발화행위이론의 '발화 책임 수행 작용 (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¹⁰⁾'과 '발화공간(référentiel énonciatif)을 중심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인용표지 'genre'에 드러나는 '타인의 말'의 담화적 개입을 Authier-Revuz (1982)가 제안한 '복합적 발화작용(énonciation complexe)¹¹⁾'으로 기술한다. 이 언어 표지가 표상하는 다양한 담화 정보적 가치는 언어적 주관성 범주(subjectivité linguistique)인 '인식 양태(modalité épistémique)'로 정의되고, 이 메타 언어적 개념은 발화행위이론의 탈언어적 기제인 연산작용(opération applicative)¹²⁾을 통해 그 의미 가치가 적확히 기술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인용표지 'genre'는 일련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한 언어 내에 고유한 의미 값과 기능을 갖는 형태소임을 해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enre' 어휘가 갖는 새로운 언어적 기제를 언어 훼손이라는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의 다양화, 언어 매체의 변화, 어휘의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관찰해야 함을 주장한 선행 연구의 가설¹³⁾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genre'의 인용 표지

7) 후반부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Cheshire, J., & Secova, M., *op. cit.*, p. 230는 'genre'의 인용표지로서의 의미 값과 기능은 영어 인용표지 'like'의 영향을 받은 직역어 (calque)가 아닌 언어 자체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발생된 것임을 실제 통계자료와 범언어적 연구를 바탕으로 증명함.

8) Buchstaller, I. and van Alphen, I. (eds.). (2012:15).

9) De Brabanter, P. (2018:140)에서 재인용.

10) 본 고에서는 '발화자가 자신의 언술에 대해 추상적인 책임자의 역할을 갖는다'는 의미로 'la prise en charge'를 '발화 책임수행'으로 번역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정연(2011:192) 참조.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정연(2016) 참조.

12) Desclés, J-P. (1976) 참조.

13) Secova, M. (2015:148).

용례들을 통해 기존 직접인용구문과 언어 형식과 인용 정보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직접인용문은 전달자의 담화 안에 화자의 담화가 재맥락화(recontextualiser)되어¹⁴⁾, 두 발화 행위의 주체 간에 성립되는 논리적 관계, 즉 상호 주관적 메카니즘이 관찰되는 대표적인 언어 형식이다. 본고는 기존 선행 연구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인용표지 ‘genre’가 표상하는 다양한 담화 정보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해 낼 수 있는 발화행위이론을 제안한다. 이 이론적 틀 안에서 인용표지 ‘genre’의 다양한 화용적 의미 값은 발화 책임 수행 작용의 복잡한 수행 연산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다시 발화 양태(modalités énonciatives)¹⁵⁾의 언어적 구현으로 설명된다. ‘genre’의 고유한 의미들은 발화행위이론의 객관적 기제를 통해 통합적으로 기술될 것이며, 이로써 새로운 인용표지로 구성된 프랑스어 구어 인용 체계를 발화행위이론의 틀 안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II. 예비적 고찰

1. 인용표지 ‘genre’의 통사적 특징

다음 예문 (1), (2) 그리고 (3)에서와 같이, 인용표지 ‘genre’의 직접인용문은 기존 인용문의 통사 구조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Rosier (2008:13)에 따르면, 기존 전달담화는 타인의 발화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특정 언어 형식과 이에 따른 특정 담화 전략을 내포한다¹⁶⁾. 예를 들어, 직접인용문의 경우는 다양한 인용

14) 재맥락화는 Faireclough (1995, 2004)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다양한 변인에 의해 담화의 사실이 왜곡되고 변형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임 ((남궁정은 외 (2006:8), 서정연 (2011:190)에서 재인용).

15) 본 연구에서 발화 양태의 개념은 발화자의 발화 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양태(발화 행위 양태(modalité d'énonciation))와 발화자가 발화체(énoncé)에 부여하는 논리적 관계가 드러나는 양태(발화체의 양태(modalité d'énoncé))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된 개념으로 본다.

동사와 문장부호의 병기 (il dit : “X dit quelque chose”) 혹은 종속절 구조 (il dit que X dit quelque chose)로 구분되고, 이러한 인용 형식을 통해 화자는 인용된 내용에 대한 거리두기, 다시 말해서 인용 정보의 진위(眞僞)에 대한 책임회피(désengagement) 담화 전략을 드러낸다¹⁷⁾. 다음 예문 (1)-(3)에서, ‘타인의 발화’는 각각 ‘non j’ai pas deux ans’ (예문(1)), ‘j’en sais rien’ (예문 (2)), 그리고 ‘elle a rien compris au cours’(예문 (3))인데, 모두 인용표지 ‘genre’와 병치(parataxe) 구조를 갖는다. 또한 예문 (1)과 (2) 경우, 인칭과 시제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직접인용문의 특징을 보이거나 예문 (3)은 주절의 인칭 제약의 영향을 받는 종속절 구조를 갖는 간접인용문의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 (1)¹⁸⁾ On dirait des gamins genre “non j’ai pas deux ans” (Letitia)
아니오, 저 두 살 아니거든요 ! 이라는¹⁹⁾ 아이들 같다고 할까
- (2)²⁰⁾ Il m’a répondu genre j’en sais rien.
그가 내게 답하길 (난) 전혀 모른다 이랬어.
- (3)²¹⁾ Elle me demande tout le temps de l’aider, genre elle a rien
compris au cours.
그녀는 내게 항상 도와달라고 해, 말하자면 그녀가 수업을 하

-
- 16) Rosier, Laurence(2008), *Le discours rapporté en français*, édition OPHRYS, p.3. (Secova, Maria(2015), “Discours direct chez les jeunes : nouvelles structures, nouvelles fonctions”, *Langage et société*, vol. 151, no. 1, p. 131에서 재인용).
- 17) ‘dire, parler (말하다), déclarer (선언하다)’ 등의 발화동사 외에도 인용 내용과 발화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해석이 개입되는 ‘assurer (확신하다)’, ‘promettre (약속하다)’, ‘accuser (비난하다), crier (소리치다)’ 등의 다양한 동사가 직접인용문에서 발견되며, 이는 화자의 발화태도부터 언술양태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서정연 (2009), 「인용동사의 언술양태 유형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80, pp. 544-546).
- 18) Yaguello, M. *op.cit.*, p.18, 이탤릭체와 밑줄은 본고에서 강조를 위해 추가함.
- 19) 전영옥 (2020:128-128)에서 지시기능의 동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그리고 그 관용형 ‘이런, 그런’이 구어에서 인용표지로서 사용되며, ‘발화 지속’ 등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함을 주장함, 본고는 한국어 인용표지 중 ‘genre’의 적절한 대응 표지로 선택했다. 이에 대해 결론 부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20) <https://www.academie-francaise.fr/genre>.
- 21) Cheshire, J., & Secova, M., *op.cit.*. p.231의 예문 (41).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Secova(2015:132)는 실제 용례분석을 통해 기존의 인용범주를 구분하는 방식대로 특정인용 표지와 통사적 특징만으로는 ‘genre’가 이끄는 인용문을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단순화된 인용 형식을 선호하는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²²⁾ Vigneron-Bosbach, J. (2020)는 실제 많은 데이터에서 구어의 직접 인용문은 휴지(pause)등과 같은 운율적 지표(indices prosodiques)나 제스처, 얼굴 표정 등의 맥락적 지표(indices contextuels)등, 비문자적 표지(marqueur non-verbal)가 함께 나타나, 인용문을 명확히 구별해 주며, 인용을 통한 화용적 의미 값과 기능을 명확히 전달 하는데 어떤 언어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²³⁾. 특히 다음 예문(4)와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가 인용될 때에 발화자(énonciateur)가 화자(locuteur)²⁴⁾의 태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모방(mimique)의 비문자적 표지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실제 용례에서 빈번히 포착된다²⁵⁾.

- (4)²⁶⁾ non mais c'est des vieux ça sourit pas tout le temps là *genre*
·hi hi la vie est belle° là (CFPQ <P59,L12>; 원본에 있는
 구두점 그대로 표기함)
 아니지 그들은 노인들이니까 항상 웃고 있진 않지, ‘흐흐흐 인생
 은 아름다워’ (뭐) 이러면서.

위와 같은 용례에 대해, De brabanter(2018)는 인용표지 ‘genre’의 인용문은 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실제 발화’를 전달함을 증명하며, 이러한 ‘genre’의 인용표지가 등장한 용례에서 발화자와 화자

22) 구어 인용구문은 병치(parataxe)의 직접인용문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Andersen, H. L(2002)의 연구를 Secova, M., *op.cit.*, p.132 재인용). Yaguello(1998:21)은 유사 직접인용 (discours quasi-directe)로 명명하기도 함.

23) Vigneron-Bosbach, J. (2020:3).

24) 언술행위의 주체를 발화자, 화자 그리고 매개자(médiateur)로 구분해 정의함, Desclés, J-P. & Guentchéva, Z., *op.cit.*, pp. 2-5.

25) De Brabanter, P., *op.cit.*, p. 140.

26) De Brabanter, P., *op.cit.*, p. 139의 (8)번 예문.

의 두 관점이 명백히 구분되는 직접인용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⁷⁾ 더불어 이러한 재현방식은 다음과 같은 예문(5)와 (6)에서 '의성·의태어'가 포함된 발화를 인용한 예들에서도 관찰된다.

(5)²⁸⁾ Je regarde en me marrant et lui me sort une tête *genre* : "*Bah quoi*"? (T)

내가 웃겨서 보고 있는데, 그는, 내게 '도대체 뭐데?' 뭐 이런 얼굴이었어.

(6)²⁹⁾ A la fin, quand l'Américain sort de son char XD³⁰⁾ comment on a rit avec le bruit vraiment con ahah. *Genre "pouh !"* (T)

마지막에, 그 미국 사람이 자기 수레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얼마나 웃었는지. 말하자면 '푸!' 하고 웃음이 터졌어.

게다가, 인용표지 'genre'는 앞서 살펴본 예문((1)-(6))과 같이 홀로 쓰이지 않고, 다음 예문 (7)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être(이다)' 그리고 'faire(하다)' 등의 동사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관점을 따라, 인용표지가 홀로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의미한 의미·화용적 의미 값과 기능의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고 구문을 구별하지 않는다.³¹⁾

(7)³²⁾ elle *était genre*, "*Oh, mon dieu, c'est mes reins ?*

(dr-house.xooit.tv/t1843-Interview-de-AI-loy.htm)

그녀는 이랬어, '어머, 세상에, 이게 내 신장이야?'

27) De Brabanter, P., *op.cit.*, p.140.

28) Doyen, E. & Davidse, K., (2009:6), (39)번 예문.

29) Doyen, E. & Davidse, K., *ibid.*, (40)번 예문.

30) 'XD'는 PJ에서 웃는 모양의 이모티를 뜻함. 따라서 'mort de rire (매우 웃김)'의 의미를 갖는다. 자세한 해석은 다음 사이트 참조,]<https://queveutdire.com/divers/que-veut-dire-xd-en-langage-sms/>.

31) De Brabanter, P., *op.cit.*, p.140.

32) Doyen, E. & Davidse, K., *ibid.*, (37)번 예문.

(8)³³) *Il fait genre il veut pas de potes sur ce jeu mais c'est son rêve !*

그는 그가 이 게임에서는 친구(와 같이 하기를)를 원하지 않는 이
렇게 말한 것 같과 마찬가지로인데, 그건 그의 꿈인거!

한편, 다음 예문(9)와 같이 ‘du genre’의 문법화 과정의 형태³⁴)로 용례에서 종종 확인되기도 한다.

(9)³⁵) *C'est pas une influence négative du genre "tiens si t'arrêtais de travailler euh fais comme nous" c'est pas tout à fait comme ça (Pierre-Marie Simo).*

그것은 ‘그럼, 일 그만두고 우리처럼 살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야,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살펴본 용례들에서 주목할 점은 인용표지 ‘genre’는 구어 담화의 관점 안에서 해당 인용문만의 고유한 언어적 실천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용표지 ‘genre’가 홀로 사용된 경우(예문 (1)-(6)) 문장의 위치와 문장 의미와의 상관 관계나 병기된 비문자적 요소들의 화용적 기능³⁶)과 의미 구현 양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Rosier(2008:3)는 인용의 언술행위는 타인의 발화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특정 언어 형식에 의해, 특정 담화 전략이 드러난다³⁷)고 보았다. 직·간접 인용문의 경우, 다양한 인용 동사³⁸)와 문장부호의 병기 (il dit : “X dit quelque chose”) 혹은 종속절 구

33) Dufaye, L. (2014:51).

34) Cheshire, J., & Secova, M., *op.cit.*, p. 26.

35) CFPP2000 (Corpus de Français Parisien), Cheshire, J., & Secova, M., *op.cit.*, p. 26), 예문 (32).

36) 전영옥(2022:109)은 전영옥(2018)에서 구어 인용표지 ‘그런’이 실시간 발화 생산의 상황에서 발화를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는 화용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37) Secova, M.,(2015:131)에서 재인용.

38) ‘dire, parler’ (말하다), ‘déclarer’ (선언하다) 등의 발화 동사 외에도 인용 내용과

조 (il dit que X dit quelque chose)로 구분되고, 이러한 인용 형식을 통해 발화자는 인용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담화 전략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직접인용의 경우, 발화자(il dit)는 화자의 발화(X dit quelque chose)를 문자 그대로(littéralité) 옮겼음을 ‘책임(committement)’지며 동시에 인용 발화 자체의 진실성(véracit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담화 전략을 갖는다. 그러므로 Rosier(2008:38)는 직접인용은 Ducrot(1984:193)의 ‘이중 발화(double énonciation)’ 개념이 잘 구현된 예로, 이 언술 행위 안에, 전달자로서의 화자(locuteur rapporteur)와 전달된자로서의 화자(locuteur rapporté)의 두 발화적 주체 (deux instances énonciatives)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⁹⁾. 본 고가 주목하고 있는, 인용표지 ‘genre’가 이끄는 인용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인용의 형식적인 차이점에 더하여 무엇을 인용하는가, 즉 인용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두 발화적 주체의 ‘책임’ 양상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인용표지 ‘genre’의 의미적 특징

Cheshire, J., & Secova, M. (2018:231)는 Buchstaller(2001)의 영어 구어 인용표지 ‘be like’와의 비교를 통해, 영어의 경우와 유사하게 프랑스어 PJ의 담화에서도 ‘genre’는 인용된 내용에 대한 발화자의 내적 견해(inner thought)와 추정 인용(hypothetical quotes)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함을 실제 용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⁴⁰⁾. 예를 들어, 다음 예문 (10)에서 ‘genre’로

발화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해석이 개입되는 ‘assurer(확신하다)’, ‘accuser(비난하다), crier(소리치다)’ 등의 다양한 동사가 직접인용문의 인용동사로 나타난다. 이는 화자의 발화태도부터 언술양태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자세한 논의는 서정연 (2009:544-546) 참조.

39) Ceccaldi-Hamet, A., & Lacaze, G. (2020:1)에서 재인용.

40) Cheshire & Secova(2018:211)는 실제 구어담화자료 분석을 통해 인용표지 ‘genre’는 영어의 ‘be like’와 유사한 문법화 과정을 거쳤으나, Buchstaller (2014:19)의 견해와 달리, 영어의 인용 방식을 간접적으로 화용론적으로 차용한 것(indirect pragmatic borrowing)이라기 보다는 언어 체계 내의 고유한 문법화 과정의 결과로 현재 인용표지의 의미 값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증명하는 사회언어학적 통계 결과를 제안했다.

표지된 구문은 직접인용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타인의 실제 발화’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를 ‘추정 인용(hypothetical quotes)’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기분이 상한 그녀’가 발화할 수 있는 발화, ‘너희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를 전달하고 있다.

(10)⁴¹) Quand je lui ai dit que t'étais pas sûr de venir elle était vraiment pas contente *genre si vous jouez pas je chante pas*.
내가 그녀에게 내가 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전했을때 그녀가 정말로 기분이 상했어 너희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뭐 이르는 듯 했어.

또한, 예문 (11)의 경우는 화자(‘Elle’, 그녀)의 발화 ‘trois heures de cours ~’에 대한 발화자(‘me’, 나에게)의 해석에 해당하는 ‘le dessin ça ne compte pas’의 구문이 ‘genre’ 인용표지에 의해 전달되었고, 이는 발화자의 견해, 판단에 해당하는 ‘내적 발화’가 인용 형식으로 표현된 예이다.

(11)⁴²) Elle me dit : « Trois heures de cours dont une de dessin ? ça fait deux ça », *genre le dessin ça ne compte pas*.
그녀는 내게 말했어 : “세 시간 수업 중 한 시간은 그림 수업이 라고? 그럼 수업시간은 두 시간이네”, 말하자면 그림 수업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다음 예문 (12)의 직접인용문의 경우도, 타인의 발화인 ‘ouais donne moi ton numéro’에 대해, ‘(faire) genre’로 표기된 인용문에서 ‘타인의 발화가 실제 존재하고 그것을 전달한다’는 직접 인용문의 의미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즉 ‘전달된 발화가 존재할 수도 있음 (plausible)’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한다.

41) Fleischman 1999 (Heine & Kuteva (2004:274)에서 재인용).

42) Yaguello(1998:18)의 예문 (5).

(12) puis il fait genre “ouais donne moi ton numéro”.

그리고서 그가 그래 전화번호 내게 줘 이래.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 (10)-(12)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인용표지 ‘genre’의 의미를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의 발화가 실제 존재함’에 대한 ‘거리두기’, ‘책임회피’ 등으로 해석하였다⁴³⁾. 예를 들어, Secova (2011:107)는 다음 예문 (13)의 인용동사 ‘dire’와의 비교를 통해, ‘genre’가 표지하는 인용문은 그 인용문이 실제 발화된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예문 (13)의 경우, 이 인용문을 듣는 상대 발화자는 전달된 타인의 발화 ‘ouais donne moi ton numéro’가 화자에 의해 실제 구현된 발화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의미 값은 인용표지 ‘dire’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 주장했다.

(13) puis il dit “ouais donne moi ton numéro”.

그리고나서 그가 그래 전화번호 내게 줘라고 말하네.

그러나 De Brabanter(2018:146)는 다음 예문 (14)과 (15)의 예를 통해, 인용동사 ‘dire’의 직접인용문에서도 ‘추정 인용’의 예들이 있음을 통해, 위의 견해들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다. 또한 그는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혼돈을 지적하고,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책임’의 화용적 의미 값과 인용표지에 의한 ‘책임’의 의미 값을 구별해야 함을 주장했다.

(14)⁴⁴⁾ Tu diras sans doute: “Tant mieux”. (Internet)

너는 당연히 ‘다행이다’ 라고 말할거야.

(15)⁴⁵⁾ Ainsi je n’aurais jamais pu dire: “Voici M. von Thadden...”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분이 바로 본 타텐씨이구요...”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야. (Internet)

43) De Brabanter, *ibid.*

44) De Brabanter(2018:140)의 (11)번 예문.

45) De Brabanter(2018:140)의 (12)번 예문.

더불어, 다음 예문 (16(4))의 경우와 같이, ‘genre’의 인용문에서 ‘화자의 발화’에 대한 재현, 모방의 표지들이 ‘dire’ 유형의 인용문보다 많이 포착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는 직접인용이라는 언술행위에서 발화자의 ‘책임’에 대한 메타언어학적 개념, 인용을 언어표지에 의한 의미작용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메타화용적 차원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본고는 그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이러한 개념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화행위이론의 이론적 틀 안에서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다음에 해명해 나가도록 한다.

(16(4)) non mais: c'est des vieux ça sourit pas tout le temps là *genre*
 ‘hi hi la vie est belle° là (CFPQ <P59,L12>; 원본에 있는
 구두점 그대로 표기함)
 아니지 그들은 노인들이니까 항상 웃고 있진 않지, ‘호호호’ 인
 생은 아름다워’ (뒤) 이러면서.

다음 장에서 우선, 발화행위이론의 틀 안에서 인용 행위에서 발화자와 화자의 책임수행에 대한 메타언어학적 개념을 정립한다. Desclés & Guentchéva (2002:2)는 언술 행위를 생각하는 주체(sujet pensant)의 의도적 사고의 소통(communiqué de la pensée)으로 본 Bally (1932)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든 언술을 발화자가 자신이 발화하는 술부 개념(relation prédicative)의 시·공간적 의미를 비롯해 그 언술의 진위(眞僞)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책임을 지는 발화 책임수행 작용의 언어적 발현(發現)으로 간주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구어 인용표지 ‘genre’가 보이는 ‘이중 발화’의 특징은 발화행위의 각 주체들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의 관계로 분석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인용표지 ‘genre’의 고유한 의미 양상도 발화 행위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언술 양태로 설명하고자 한다. 인용이라는 것은 인용의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언술의 담화적 의미와 기능, 다시 말해, 언술의 발화적인 상황, 언술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 발화의 주체들 간의 주관적 태도까지 전달하는 복잡한 담화구조이며, 이는 다양한 언술 양태로 표지된다⁴⁶⁾. 다음에서 우리는 ‘genre’의 언술 양태적 의미가 ‘genre’의 문법화 과정에서 공통의 의미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비교(comparaison)’

와 '추정(approximation)'의 의미 값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⁴⁷⁾

III. 인용표지 'genre'의 발화 연산

1. 직접인용의 발화 책임 수행 작용과 발화 연산

앞서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용표지 'genre'의 다양한 의미 값은 직접 인용이 단순히 타인의 언술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발화 행위의 결과임을 함의한다. 인용이라는 복잡한 언어 수행에 대해 Bakhtine(1977:161)은 전달담화는 담화 속의 담화이며, 발화행위 안의 발화 행위인 동시에, 담화에 대한 담화이며, 발화행위에 대한 발화행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Bailly(1932)는 언어에 표현된 주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문장은 생각을 전달한다. 그 생각은 객관적 표상(représentation)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다. 따라서 문장은 그 의미 구조에서 의미, 기억, 상상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표상 즉 언표(dictum)와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양태(modus)를 내포한다. 이러한 Bailly(1932)의 가설을 바탕으로 Desclés & Guentchéva (2002)는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와 발화 책임수행 작용의 개념을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모든 언술은 발화자가 자신이 발화하는 술부 개념의 시·공간적 의미를 비롯해 그 언술의 진위(眞僞)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책임을 지는 발화 책임수행작용의 언어적 발현(發現)으로 간주한다.”

위의 가설에 근거해 다음의 '기본 발화 작용 공리(schéma minimal d'énonciation) : (공리 1)'를 제안한다.

46) 인용동사의 언술양태 유형에 대한 연구는 서정연 (2009:556-565) 참조.

47) Buchstaller, I., & Van Alphen, I.,(2012), (De Brabanter(2018:140)에서 재인용).

[공리 1 : 기본 발화 작용 공리]

a. DIS ((ce qui est dit))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a'. JE DIS ce qui est dit, «ce qui est dit» = dictum, JE DIS = modus

위 공리의 핵심적인 개념은 발화자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표상하는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 opérateur «JE-DIS»이다. 여기서, 'JE'는 발화자를, 'DIS'는 발화 작용의 술부 연산자(opérateur verbal d'énonciation)를 각각 가리킨다. 자세히 말하자면, 연산자 «JE-DIS»는 술부관계인 «ce qui est dit» (말해진 것)를 피연산자(opérande)로 가지는 발화자의 발화 책임 수행 작용을 표상한다. 이러한 발화 작용은 발화자의 발화 공간 안에 술부 관계를 위치시키는 발화자 'JE'의 정위(定位)작용(opération de repérage)과 반드시 결합된다. 정위 작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위 작용이란 발화자가 발화 행위의 순간에 외부의 세계와 무관한 고유의 시공간(référentiel énonciatif)안에 모든 지시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i)의 실제 주어인 인칭 대명사 'je 나', 'tu 너' 그리고 'il 그'은 각각 발화자 'JE'와 확인 identification (=), 구별 differenciation (≠) 그리고 관계없음 ruption (#)의 정위 작용의 결과로 구현된 언어적 표상이다.

(i) a. 나는 서울에 있다. b. 너는 서울에 있다. c.그는 서울에 있다.

위 각각의 언술에 대한 정위 작용은 다음과 같다.

- (ii) a'. (JE-DIS:) 나 (trace de l'identifica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발화자와 화자의 '확인 정위 작용의 표지') 서울에 있다,
JE ("énonciateur") DIS : X는 서울에 있다 ; <X:=JE><X:=나>
- b'. (JE-DIS:) 너 (trace de la différencia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발화자와 화자의 '구별 정위 작용의 표지') 서울에 있다,

JE ("énonciateur") DIS : X는 서울에 있다 ; <X:#JE><X:=너>
 c'. (JE-DIS:) je (trace de la rup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발화자와 화자의 '관계없음 정위 작용의 표지') 서울에 있다,
 JE ("énonciateur") DIS : X는 서울에 있다 ; <X:#JE-TU> <X:=그>

이때, 모든 언술에서 발화자는 문장의 주어와 무관하게 그 발화의 진위를 담당하는 발화 책임수행 작용과 그와 수반된 정위 작용의 연산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위의 두 가정을 바탕으로, 직접화법의 발화공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직접인용문의 언술행위에 관여하는 두 주체, 발화자와 화자가 있다. 발화 책임수행 작용과 정위작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두 주체는 구별되어 정의된다

[공리 2 : 전달 담화의 발화 공리 - 화자와 발화자 구별]

a. DIS (DIT (ce qui est dit, 말하여진 것) X)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X = 화자 (locuteur)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ce qui est dit (말하여진 것)

a"). <X:#JE> : 실제 화자 'X'는 발화자 JE에 의해 '구별'로 정위된다.

위의 공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달 담화의 발화 연산은 실제 술부 관계인 «ce qui est dit» (말해진 것)를 피연산자로 가지는 연산자 «X-DIT»의 일차적인 발화 책임수행 작용과 다시 'X'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 «JE-DIS»의 이차적인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통해 성립된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인용표지 'genre'의 직접인용문을 위 [공리 2]를 통해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한다.

(17(2)) Il m'a répondu *genre j'en sais rien*.

그가 내게 답하길 (난) 전혀 모른다 이랬어.

우선, 발화자와 무관한 화자간의 '술부 표현 ce qui est dit'에 대한 발화 책임수행 작용의 차이는 다음 공리 (17)'와 같다.

- (17)' a. DIS (DIT (ne rien savoir) je)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X = 화자 (locuteur)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ne rien savoir)
 a". <X≠JE> : 실제 화자 'je'는 발화자 JE에 의해 '구별'로 정위
 된다.

그리고 이때, *genre*가 드러내는 양태는 'X-DIT (*ne rien savoir*)'에 대한 인식 양태이다. 이는 발화자의 양태적 판단(*jugement moral*)과 관련된 언술 유형이다. 다음과 같은 [공리 3]을 제안할 수 있다.

[공리 3 : 발화 공리 : 양태]
 DIS (opérateur modal (DIT (말하여진 것) X)) JE,
 JE = 발화자, X = 화자

위의 [공리3]를 기준으로 위 예문 (17)의 발화 연산의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17)''과 같다. 즉 예문 (17)에서 'genre'의 의미는 해당 인용 발화의 실현성에 대해 '가능하다 (*être-probable*)'의 의미 값을 주관적으로 가지며, 이는 술부관계, 'ce qui est dit (말하여진 것)'에 대한 '가능하다'의 발화 책임 수행이다. 그러므로 연산자 '가능하다 (*être-probable*)'를 상정해 다음과 같이 (17)을 연산식으로 다시 쓰기 해보면 다음과 같다.

- (17)'' a. DIS (est-probable (DIT (ne rien savoir) je)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X = 화자 (locuteur)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ne rien savoir)
 a". <X≠JE> : 실제 화자 'je'는 발화자 JE에 의해 '구별'로 정위된다.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ce qui est dit (말하여진 것)

2. 인용표지 'genre'의 언술 양태와 발화연산

앞서 예문 (17)과 같은 직접인용문에 나타나는 발화자 JE와 화자 X의 발화 작용을 간략히 정리해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 (i) JE-DIS λ_1 , 이때, $\lambda_1 = X-DIT \lambda_2$
- (ii) JE-DIS (X-DIT λ_2)

발화자 'JE-DIS'의 발화 책임수행은 술부관계 λ_1 를, 차례로 화자 'X'의 발화 책임수행은 술부관계 λ_2 를 각각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에 피연산자로 갖는다. 그러므로 발화자의 λ_1 에 대한 발화 책임수행은 화자 'X'의 언술 행위((X-DIT λ_2))에 대한 발화 책임수행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직접 인용에서 나타나는 언술 양태들은 언술의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 'X-DIT'를 중심으로 하는 언술 연산자들의 발화 작용과 다시 이러한 발화 작용을 발화 책임 수행하는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 'JE-DIS'와의 복합적인 발화 작용의 발현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iii)과 같다.

- (iii) DIS (opérateur modal
 (DIT (opérateur modal (말하여진 것) X))) JE
 ----- λ_2
 ----- λ_1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용표지 'genre'의 직접 인용문의 언술 양태를 크게 발화자 'JE'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중심으로 다음 두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i) λ_1 에 대한 발화자 'JE'의 양태를 중심 : M1
- (ii) λ_2 에 대한 화자 'X'의 양태에 대한 발화자 'JE'의 발화 책임수행을 중심 : M2

다음에서 대표적 용례들을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기준으로 기술해보도록 한다.

- 1) [X-DIT]의 발화작용(λ_1)에 대한 발화자 JE의 양태 M1

앞서 밝힌 바대로, λ_1 에 대한 발화자 'JE'의 양태적 판단이 표상되는

언술 유형이다. λ_1 의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인식 양태를 보이는 언술유형이다. 앞서 예문(17)’과 같은 발화 양태는 다음과 같은 연산식으로 다시 표상된다.

- DIS (est-probable (X dit λ)) JE
 발화자는 화자 X가 λ 의 정보 제공의 주체일 수 있다는 ‘일어날 법함 (être-probable)’을 발화 책임수행한다.

한편, 다음 예문 (18(10))과 같은 추정인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λ_1 의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인식양태를 보이는 언술유형이다.

(18(10) Quand je lui ai dit que t'étais pas sûr de venir elle était vraiment pas contentente *genre si vous jouez pas je chante pas.*
 내가 그녀에게 네가 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전했을 때 그녀가 정말로 기분이 상했어 말하자면 너희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뭐 이러는 듯 했어

이와 같은 ‘genre’의 발화양태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Buchstaller(2012:15)⁴⁸⁾의 ‘경감완화’ 혹은 ‘완화’등의 화용적 의미값으로 설명하였다. 위 예문 (18)에서 ‘genre’의 의미는 해당 인용 발화의 실현성에 대해 ‘가능하다 (est-possible)’의 의미값을 주관적으로 가지며, 이는 술부관계, ‘ce qui est dit (말하여진 것)’에 대한 ‘가능성’의 발화 책임 수행이다. 그러므로 연산자 ‘가능하다(est-possible)’를 상정해 다음과 같이 (18)’로 연산식 다시 쓰기 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추정인용의 예들이 이 발화양태에 속한다.

- DIS (est-possible (X dit λ)) JE
 발화자는 화자 X가 λ 의 정보 제공자의 주체일 수 있다는 ‘일어날 가능성 (est-possible)’을 발화 책임수행한다.

48) Buchstaller, I. and van Alphen, I. (eds.). (2012:15). *Quotatives: Cross-Linguistic and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Amsterdam: Benjamins.

- (18)'' a. DIS (est-possible (DIT (ne rien savoir) je))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X = 화자 (locuteur)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si vous ne jouez
pas je ne chante pas)
a". <X≠JE> : 실제 발화자 'je'는 발화자 JE에 의해 '구별'로 정
위된다.

다음으로는 발화자 'JE'가 가지는 화자 'X'의 발화 행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양태이다. 그중 화자 'X'의 물리적인 발화 태도와 주관적 감정이 표현된 언술 유형으로 앞서 살펴본 재현과 의성·의태어가 사용된 구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예문(19(6))은 'X'의 주관적 감정이 의성어 'pouh'로 표현된 것을 발화자 'JE'가 발화 책임수행하는 경우이다.

- (19(6)) A la fin, quand l'Américain sort de son char XD comment on a rit avec le bruit vraiment con ahah. *Genre "pouh !"* (T)
마지막에, 그 미국 사람이 자기 수레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얼마나 웃었는지. 말하자면 '푸!' 하고 웃음이 터졌어.

연산식은 다음과 같다.

- DIS (manière de dire (X dit λ) JE
발화자는 화자 X의 dire의 발화 행위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판단 양태를 발화 책임 수행한다.
- 2) 발화자 JE의 [X-DIT]의 λ_2 에 대한 발화 책임수행 M2 이번 유형의 언술 양태는 발화자 'JE'가 화자 'X'의 λ_2 에 대한 양태를 중심으로 바라본 언술 유형을 보여준다. 예문 (20(8))와 같이, 화자 'X'가 λ_2 의 진위에 대한 개입 없이 언술한 경우이다. 이때, 두 단계의 연산이 진행된다.

우선, 화자 X의 (λ)에 대한 개입이다.

- DIT (λ) X : λ 2

화자 X의 dire를 발화 책임수행한다.

그리고 JE-DIS의 λ 2에 대한 개입이다. 이때 언술양태 M1도 함께 개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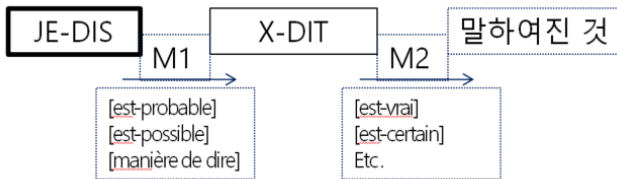
- DIS ((M1 (M2 (DIT λ) X)) JE

(20(8)) Il fait genre il veut pas de potes sur ce jeu mais c'est son rêve !

그는 그가 이 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하기들)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 같과 마찬가지로인데, 그건 그의 꿈인거고!

지금까지 살펴본 ‘genre’ 인용표지의 언술양태는 각각 두 발화 책임수행 연산자 ‘JE-DIS’와 ‘X-DIT’의 복합적인 발화 연산의 결과가 언어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아래 [표1]와 같은 의미지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genre’의 언술양태 의미지도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 청소년 구어체 담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담화 표지 ‘genre’의 직접인용 용례를 중심으로 이 언어 형식이 발현하는 다양한 의미·화용적 의미 값을 발화행위이론 하의 복합연산의 개념으로 해명하였다. 발화 주체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언술 양태들로 표상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용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발화행위의 결과인 언술, 그 자체만을 빌어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언술행위를 발화자 자신의 언술 행위 안에서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매우 복잡한 발화행위의 결과임을 발화 연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된 연구결과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실제 자료들을 관찰하고 검토하는 작업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의 인용 형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대두되는 인용의 범위와 정의의 문제, 간접 인용문과 직접 인용문의 구별 문제에 관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듬어지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어 인용에서 인용 구분의 지표가 되는 억양, 휴지, 어조 등 다양한 비문자적 기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용의 구현 위치 등에 따른 화용적 실천의 차원까지 해당 인용표지를 둘러싼 다양한 언어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새로운 구어인용표지에 대한 범언어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genre'와 유사한 언어적 변이와 실천을 보이는 다양한 언어권과의 비교연구는 해당 표지가 발현하는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예문 번역과 주석 과정에서 한국어 구어인용과의 비교 연구 필요성도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어 구어인용표지의 다양한 의미·화용적 기능들을 프랑스어의 구어 인용표지들과 비교함과 동시에 발화행위이론의 발화 책임수행 작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 기능을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 특정 언어의 인용체계를 넘어서 범언어적 현상으로써 구어 인용의 언술 행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ndersen, H. L. (2002), “Le choix entre discours direct et discours indirect en français parlé: facteurs syntaxiques et pragmatiques,” *Faits de Langues* 19, 201-210.
- Bakhtine, M. (VOLOCHINOV VN.) (1929(1977)),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Essai d'application de la méthode sociologique en linguistique*, Paris, Minuit (프랑스어 번역판 1977).
- Blyth, Carl, Recktenwald, Sigrid and Wang, Jenny (1990), “I’m like, ‘Say what ?!’”. *A new quotative in American oral narrative. American Speech* 65: 215-227.
- Brabanter, Philippe De (2018), “Pragmatic and semantic commitment when using quotative markers, with application to French dire and genre”, *Journal of Pragmatics*, Volume 128, 137-147.
- Buchstaller, I. (2001), “He goes and I’m like: the new Quotatives re-visited”, *Présentation à NWAV 30*, Raleigh, USA.
- _____, (2014), *Quotatives: New trends and sociolinguistic implications*, Oxford: Wiley Blackwell, 19
- Buchstaller, I. and van Alphen, I. (2012). “Preface: introductory remarks on new and old quotative”, In: *Quotatives: Cross-Linguistic and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Amsterdam: Benjamins. pp. xi-xxx.
- Cappelen, H. & Lepore, E. (1997), “Varieties of quotation”. *Mind* 106, 429-450.
- Ceccaldi-Hamet, A., & Lacaze, G., (2020), “Le discours rapporté et l’expression de la subjectivité”, *E-rea [En ligne]*, 17.2
- Chauveau-Thoumelin, P. (2016), “De l’exemplification à la catégorisation approximative : étude de la construction [[X]SN genre [Y]SN],” *Présentation du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 2016.
- Cheshire, J., & Secova, M. (2018). “The origins of new quotative expressions: The case of Paris French”, *Journal of French Language*

- Studies*, 28(2), 209-234.
- Culioli, A. (1973), «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 *Communication* 20, 83~91.
- Danon-Boileau Laurent, Morel Mary-Annick. (1997), “Question, point de vue, genre, style... : les noms prépositionnels en français contemporain.” in: *Faits de langues*, n°9, Mars (1997). La préposition : une catégorie accessoire? sous la direction de Mary-Annick Morel. 193-200.
- Deignan, A. (1999), “Linguistic Metaphors and Collocation in Non-literary Corpus Data,” *Metaphor and Symbol* 14, 36-68.
- Desclés, J-P. (1980), “Construction formelle de la catégorie de l’aspect (essai)”, *Notion d’aspect*, David, J., et Martin, R., (eds), Klincksieck, Paris, 195~237.
- _____, (1976), “Quelques opérations énonciatives élémentaires”, *Logiques et niveaux d’analyse linguistique*. David, J., et Martin, R., (eds), Klincksieck, Paris, 213-242.
- Desclés, J-P. & Guentchéva, Z., (2002), “Énonciateur, locuteur, médiateur”, *Les rituels du dialogue*, éd. Aurore Becquelin et Philippe Erickson, L’Harmattan, 2002, 79-112.
- Dostie, G. & Pusch, C. (2007). “Présentation. Les marqueurs discursifs. Sens et variation”. *Langue française*, 154, 3-12.
- Doyen, E. & Davidse, K. (2009). “Using Internet data for the study of language change: a comparative study of the grammaticalized uses of French genre in teenage and adult forum data,” *Proceedings of the Fifth Web as Corpus Workshop (WAC5)*.
- Ducrot, O., (1984), *Le dire et le dit*, Paris, Minuit. 193.
- Dufaye, L., (2014) “Genre ou le scénqrio d’une grammaticalisation”, *Linx* 70-71, 51.
- Fairclough (1995, 2004),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담화분석』, 한국문화사, 서울.
- Fleischman & Yaguello (1999), “Discourse markers across languages?”

- Evidence from English and French.” In Carol Lynn moder & Aida Martinovic-Zic (eds.) *Discourse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Amsterdam: Benjamins, 129-147.
- Gadet, Françoise, and Anaïs Moreno Kerdreux (2020), “ ‘J’ai commencé à pleurer wesh [...] euh on parler pas des darons zaama mes darons ils m’ont mal éduquée’ : de quelques marqueurs discursifs.” *L’individu et Sa Langue. Hommages à France Martineau*, edited by Wim Remyen and Sandrine Tailleu,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211-232.
- Grundy (2000), *Doing pragmatics*, Hodder Press.
- Isambert, P., (2016). “Genre : Une mode récente mais qui vient de loin”, *Journal of French Language Studies*, 26(1), 85-96.
- Lamizet, Bernard (2004), “Y a-t-il un « parler jeune » ?”, *Cahiers de sociolinguistique*, vol. 9, no. 1, pp. 75-98.
- Maingueneau, D.,(2003),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4e édition. Paris, Nathan, 115.
- Secova, M. (2015), “Discours direct chez les jeunes : nouvelles structures, nouvelles fonctions”, *Langage et société* 151, É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31-151.
- _____, (2011). *Discourse pragmatic features of spoken French: analysi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Rosier, L., (2008), *Le discours rapporté en français*, édition OPHRYS
- _____, (2005), “ La polysemie des mots genre, style, type”, In : *La polysémie*. Sous la dir. d’O. Soutet. Paris :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231-243.
- _____, (2002), “Genre : le nuancier de sa grammaticalisation”, *Travaux de linguistique*, (no 44), 79-88.
- _____, (2000), “Les petits “rapporteurs” de discours”, In : *Grammaticalisation 1. (dé)motivation et contrainte*. Sous la dir. de P. de Carvalho & L. Labrune. Rennes :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9-229.

Yaguello, M., (1998), "Genre, une particule d'un genre nouveau", *Petits faits de langue*, sous la direction de Yaguello Marina. Le Seuil, 18-24.

Vigneron-Bosbach, J. (2020), "(Be) like en anglais, genre en français : de la prosodie comme commentaire subjectif", *E-rea* [En ligne], 17.2.

남궁정은 외 (2006), 「신문 인용 보도의 텍스트 구조」, 『스피치 & 커뮤니케이션』6, 7-44.

서정연 (2016),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발화적 개입 양상 연구」, 『기호학 연구』48, 51-83.

_____, (2011), 「지능형 인용문 자동 주석기 개발을 위한 텍스트 연구」, 『프랑스 어문교육』38, 189-212.

_____, (2009), 「인용동사의 언술양태 유형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 80, 535-570.

전영옥 (2022), 「구어에서의 '이런/그런'의 인용표지적 쓰임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47, 07-131.

_____, (2018), 「구어와 문어에서의 '그런'의 실현 양상 연구」, 『한말연구』 50, 123-167.

조정민 (2017), 「한국어 인용구문에 나타나는 메타화용적 특징 연구」, 『언어와 언어학』 77집, 141-168.

❖ ABSTRACT

Reflections on the Pragmatic Use of the French Discourse Marker ‘Genre’

Jungyeon SUH
Seoul Women’s University

The discourse marker ‘genre’ frequently appearing in spoken discourse among French teenagers, has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studies on the semantic change process of the vocabulary, analysis of the speaker’s meaning and pragmatic discourse strategies revealed by this marker, and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focusing on distinctive language usage patterns within specific groups.

This study emphasizes on the diverse semantic values that ‘genre’ conveys when directly quoted in utterances. Within the domain of reported speech, we aim to provide a precise explanation of the discourse strategies in which speakers are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thus redefining them as performative acts of responsibility. Particularly, through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variation patterns found in the English direct speech marker ‘be like’, we try to shed light on emerging trends in spoken discourse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his research seeks to demonstrate that the usage of the quotation marker ‘genre’ is evolving and moving beyond normative language categorizations, which have classified it as nonstandard language usage, specific colloquial habits, or meaningless repetition. ‘Genre’ is establishing itself as a linguistic phenomenon within the quotation system, and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its evolving role.

Keywords: 'genre', a new quotation marker, spoken language of the younger generation, discourse marker.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